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백옥경 회장
— 이소암 시인 — 도심 속의 '섬', 전종현·유주리 부부
— 캠핑용품 제조업체 '엑스레벨', '수퍼에너지엑스' — 문화재해설사·숲해설가·시낭송가 김형순 씨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 군산대학교 김동익 교수 — 경자년 새해, 빨라진 총선거제 — 소룡동 따뜻한 온정의 손길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ww.kunsan.ac.kr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새로운 시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가능성은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미래가치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람으로 세상을 잇다

사람을 키우는 대학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

교육혁신의 선두!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선정
- 국립대학육성사업 선정
-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선정

산학협력의 강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선정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4개 분야 최우수

글로벌 인재의 요람!

-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선정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사업(대형 해상풍력 터빈 해상실증 기술 개발) 선정

시민과 함께
 꿈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



이제는 아이젠카에서!

군산지사장 이 복

010-5265-5061

아이젠카 건적 업체 이달의 **특가 상품 이벤트**입니다.

월렌트로 최저가 선언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별도 납부 없음.

특가 상품은?

이번달 한달동안 업체에서 제공할수있는
최저가 건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특가 상품은 제조사 및 캐피탈사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 마감될수있습니다.

아이젠카만의 차별화

1.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계약 관리 팀 별도 운영

- 계약이후 끝이 아닌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만족 실현
- 민원 관련 고객센터 운영으로 고객서비스 실현

2. 월 납부로 최저가로 건적을 제공할것입니다

- 한개업체 건적이 아닌 복수 건적중 최저가 업체 건적을 비교 해드리겠습니다.

3. 아이젠카 만의 서비스

- 자동차 전문 상담인력 배치로 고객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전달 제공
- 질문을 남기시거나 문자서비스, 이메일 답변등을 통해서 고객님의 궁금하신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실수있습니다

4. 국내 렌트사 및 캐피탈사 제휴를 통해 최저가 차량만을 제공하고있습니다.

- 10여개의 렌트사 및 20여개의 캐피탈을 통해 믿을수있는 다양한 차량들을
고객님께 맞춤 제공해 드리고있습니다

5. 차별화된 차량 비교검색



죽도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검도는 단순히 때리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검도의 최종 목적은 인격형성을 추구하는 무도이기 때문에 기능 향상만을 위해 수련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검선을 일치시킴으로써 자아를 발견하는,
무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있는 체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장_진인하 7단

주소_전북 군산시 미장안길 50-13 (미장동) 통근타운 4동 301호

전화_(063)466-7377 팩스_(063)466-7377 이메일_kumdojin77@naver.com

사진제공_박진영

세상의 모든 보험!

최고의 전문가들이 궁금함에 답을 드립니다.

▼
보험 미지급 건
최준호 대표
010-7467-7483

뇌질환, 심장질환
자살
기타 보험사 지급 거절 건

▼
마루 노무사
송충엽 소장
010-4650-8236

산재 (수협산재) (과로사 등)
노무관리
4대 보험 관리

▼
손해 사정사
오창교
010-4900-1010

개인 후유장해
교통사고 보험금 산정
암 진단 (D37.5진단 분쟁 등)
일상배상 / 영업배상

▼
GA지사
박남혜 대표
010-2396-5635

보험 증권 분석 / 증권 관리
보험 청구 / Solution
상품 선택 조언
보험보상전문상담



+ 소정운 변호사
010-5400-3498

자동차 대인 사고
장기(보장성)보험
산재 / 근재

5년 이내 암 진단만 아니라면
보험은 준비 할 수 있습니다.

GA지사 박남혜
010-2396-5635

월10만원소비
브랜드체인지
+
추천 2인

즐거운 소비가 소득으로 창출되는 라이프스타일!
신뢰의 기업 교원과 든든한 미래준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화 한통으로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단 두가지 조건으로
평생 함께 할 부업을 만나세요.

www.theorm.kr
군산 박남혜 010-2396-5635

KYO
WON 교원



www.maggun.com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매거진군산

광고를 고민하신다면!

발행부수 5,000부,

군산 전 지역 무료배포, 1,500부 발송!

높은 회독률과

지역 독점 기사의 집중도까지 따져보신다면

매거진군산의 광고효과는 탁월합니다.

이제

광고마케팅은 매거진군산에 맡기시고

당신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매거진군산

a. 54027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2층

t. 063-445-1856 f. 063-911-1856 wh. icm23 (icm23)

www.newgunsan.kr



새군산신문

NEW GUNSAN WEEKLY

새로운 시민의 대변자

Add. 전북 군산시 장미1길 27 장미빌딩

Tel. 063-445-4700

Fax. 063-442-3883

장미칼럼

일희일비(一喜一悲)

군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요즘엔 그 강도가 더 세진 느낌이다. 경기 부진, 인구 감소, 고용 불안, 불투명한 미래 등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위기에 빠진 현 상황을 해소할 길은 없는가.

문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언제 재가동될지 알 수 없고, 전기차 생산기지로 바뀐 GM군산공장의 경우 실제적인 생산과 고용 창출 등의 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리하고, 혹은 퇴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는 인구 유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구매력 높았던 고액 연봉자 가족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 둔화로 이어졌다. 너도 나도 '위기'라는 심리적인 공황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려움 보다 '위기'가 훨씬 큰 의미로 확대 재생산되지 않았느냐는 견해도 적지 않다.

'가난은 나랏님도 못 막는다'라는 옛말이 있지만 적어도 군산 인구의 마지노선 27만을 지키려는 단호하고도 간절한 외침과 정책이 뒤따르길 기대한다.

최근 군산 경제의 젖줄이라고 하는 세아베스틸이 10일간의 무급 휴가를 주면서 고강도 기업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군산공장 창사 이래 처음이라는 소식이며 실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경우 가뜰이나 어려운 군산의 경제는 뿌리째 흔들릴 게 뻔하다.

세아베스틸 직원들조차 긴장하고 그 여파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으나 군산시 등 외부 기관은 찻잔 속의 바람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다. 걱정스런 일이다.

위기를 극복하려는 여러 정책들이 메아리 없는 외침이 아니라 사업 현장마다 실제로 외침이 되고 반향이 되길 기대한다.

지금은 공직 사회가 사회 전반을 선도해 나가는 시대로 바뀌었다. 민간의 경쟁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위민(爲民)의 의미는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 말로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며 한걸음이라도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정치와 행정을 말한다.

공직사회가 먼저 어렵고 힘든 일에 뛰어드는 일, 그리고 입신양명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는 일, 그게 바로 위민이다.



편집장_채명룡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월간지로서 자택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 서는 **본 지 마지막페이지에 CMS 구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 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063)445-185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금처 신한은행 110-180-087549
예금주 이진우 (아이씨엠)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 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_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282pyk@hanmail.net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괜찮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 주시거나 282pyk@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 후원 업체

오죽일식_식사권 / 063-464-5625
발렌타인피자_불고기피자 테이크아웃 / 063-442-4886
노가리&비어 (수송점)_세트안주 이용권 / 010-6542-5782
곰창이최고예요 (수송점)_곰창 1인분 이용권 / 050-7900-0803
도마 (수송점)_돼지한마리 세트 / 063-471-0023
바나나팩토리_커피 음료권 / 063-452-9479
8월의크리스마스_커피 음료권 / 010-8928-3481
소셜여행 커피샵_커피 음료권 / 063-446-9466
달 커피샵_커피 음료권 / 010-9548-3383
철길마을 우리문방구_사진매직거울 / 010-3556-2564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E-mail_ 282pyk@hanmail.net **Fax**_ 063) 446-1856



Vol. 106 | 2020.01



발행인 이진우 jay0810@hanmail.net
편집장 채명룡 ml7614@naver.com
디자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이경호 kyungho159@naver.com
주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편집위원 장인수 isj1453@nate.com
편집위원 김혜진 kimhyejin0324@hanmail.net
편집위원 박정숙 njpcslife@gmail.com
편집위원 신재순 speedal@jbedu.kr
편집위원 이현웅 gunsanmusic@daum.net
편집위원 김정인 jbct20102@jbct.or.kr
컬럼니스트 이복 bok9353@hanmail.net
컬럼니스트 남대진 bitsori454@daum.net
컬럼니스트 온승조 gsforum@hanmail.net

제작 ICM (063)445-1856
주소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출판신고번호 467-2011-000002
인쇄 진영인쇄 (063)446-7801
온라인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집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번호_군산 라 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디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아이와 어른을 위한
신재순 시인의 동시로 건넨는 안부_ 11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

마음 속의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인내를 가지라.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하라.

지금 당장 해답을 얻으려 하지 말라.

그건 지금 당장 주어질 순 없으니까.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살아 보는 일이다.

지금 그 문제들을 살라.

그러면 언젠가 먼 미래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테니까.

-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열림원, 2009)

동심을 노래한 시 중 어린이가 쓴 시를 어린이시라고 하고 어린이시와 구별지어 어른이 쓴 시는 동시라고 합니다. 여기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와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이 함께 읽으면 좋을 동시를 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안부를 건넵니다. 편안하신지요 그리고 부디 편안하시길요.

2020년 새해입니다. 지난해 모두 힘겹게 살아내 셧지요. 그러셨으니 올해는 더욱더 단단해진 그 힘으로 잘 살아지실 겁니다. 올해 처음은 동시가 아닌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를 소개합니다. 시인에게 주는 충고이기에 더욱 풀리지 않는 문제를 직접 살아보라고 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말은 삶을 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삶의 문제들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끝없이 답을 구하되 지금 당장 쉽게 얻으려 하지 말라고 릴케는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 삶을 살아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해가 밝았는데도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힘껏 살아보시게요. 삶의 매듭은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도 모르게 풀리고 있을 테니까요.

신재순
시인 / 한국동시문학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사회봉사, 나라 사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백옥경** 회장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지난 1980년대 초,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을 담은 범국민적 통일기구로서 헌법기관으로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어느덧 40여 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 기구는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초당적·범국민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건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는데 군산시 평통의 경우 지난해 9월, 평소 교육과 다양한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백옥경 씨가 제19대 회장에 취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 기대감을 주고 있다.





대야 출신인 백 회장은 대야초등학교와 이리여고를 거쳐 군산교육대학을 졸업한 뒤 군산풍문초등학교에 초임 발령받아 남초등학교까지 약 10여 년을 교직에 몸담은바 있다.

퇴직 5년 뒤인 85년도 들어 군산시 학교 어머니회 회장을 맡게 된 그녀는 약 4년 동안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풍토 조성과 학교 발전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91년부터 96년 기간 동안엔 군산시 적십자 봉사회 회장으로서 사회봉사활동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그러던 중 93년도 10월 위도 서해페리어객선 침몰 사고가 발생, 무려 292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구조된 재난현장에 달려가 회원들과 함께 긴급봉사활동을 펼친 것은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병마가 바뀌어놓은 인생관

2009년도 들어 백 회장은 뜻밖의 병마를 만나게 된다. 이로 인해 심신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수술 후 다행히 병이 회복되어가면서 그녀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다. 살아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일지니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에서다. 원불교 군산

지구 여성회장이기도 한 그녀는 2001년도 들어 국제차 문화 교류 협력재단 회장, 2013년엔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을 위해 역량을 쏟은바 있으며, 2014년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때는 큰 충격과 슬픔을 안은 채 회원들과 함께 현지에 내려가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밖에도 사)한울안운동 군산지회장, 군산시여성발전위원, 노인복지시설 보은의집 운영위원, 군산시치안협의회 위원, 안전문화운동 군산시협의회 위원, 군산건강지원센터 운영위원, 전국연극제 자문위원,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군산대 기성회 이사, 군산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조정위원회 위원 등 다각적 사회활동 임무를 소화해내면서 전북도지사 상 2회와 군산시장 상을 수상한바 있거니와 45년간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신 미담이 알려지면서 현직 효행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도엔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이사, 이듬해엔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본격적으로 평소의 바람이었던 국내외 봉사활동에 헌신하게 된다.



독도 강연



자원봉사 업무 협약식





캄보디아 해외봉사

첫 해외봉사활동, 캄보디아

백 회장은 많은 봉사활동 가운데에서도 2018년도 자원봉사센터 13명의 회원과 해외봉사로서는 첫발을 댄 캄보디아를 잊을 수가 없다. 현지에 나가 직접 목격한 낙후되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학교며 삶의 모습들은 마치 우리의 50~60년대를 연상케 했다. 그러면서도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어린 아이들의 표정이나 행동은 무척 순박하기만 했다. 단원들은 5박6일 동안 체류하며 교육과 문화 등에 걸쳐 성심껏 지도하며 그들과 함께 했는데 떠나오는 날 단원들 누구랄 것도 없이 저마다 입고 간 옷이며 신발 등을 그들에게 선물하며 선물을 하는 것을 보면서 회장으로서 그러한 단원들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워 내심 감동에 젖기도 했다. 이 봉사활동에는 약국을 운영하는 며느리의 협조도 큰 힘이 되었다. 평소 시어머님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을 아끼지 않아 항상 고맙고 기특하게 여겼던 그 며느리가 현지 주민들에게 배포할 구충제 등 700명분에 달하는 의약품을 후원해주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해외봉사





명절음식 한보따리 사업

2019년 군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해외봉사를 마치고 돌아와 퍼낸 자원봉사센터 활동일지를 통해 백 회장은 “지구촌 곳곳의 소외된 이웃들이 곧 내 이웃이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캄보디아 어린 친구들에게 쏟아 부은 봉사단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열정과 용기, 봉사정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가까이 후원에 참여해주신 군산시보건소, 군산시의용소방대연합회, 월명중학교, 우리한의원, 디오선약국 등 기관 단체 여러분과 축구용품, 다양한 의류 등을 후원하신 개인봉사자와 시민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린다.”는 소감을, 그리고 함께 했던 단원들 저마다 느낀 감동어린 소회를 피력하기도 했다.

백 회장은 새해 들어 또 해외봉사활동의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 올해는 캄보디아 외에 몽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군산의료원과 협의, 의료봉사형태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해외봉사는 지원자가 결정되면 현지 법규나 문화 등에 걸친 소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사전 이수해야 되며 현지 의료봉사 외에도 현지 주민 의사를 반영한 마을가꾸기(벽화그리기 등)사업을 병행하게 된다.

독도 위문품 전달



2019 10. 8 19기 출범식출범식
(백옥경 협의회장 취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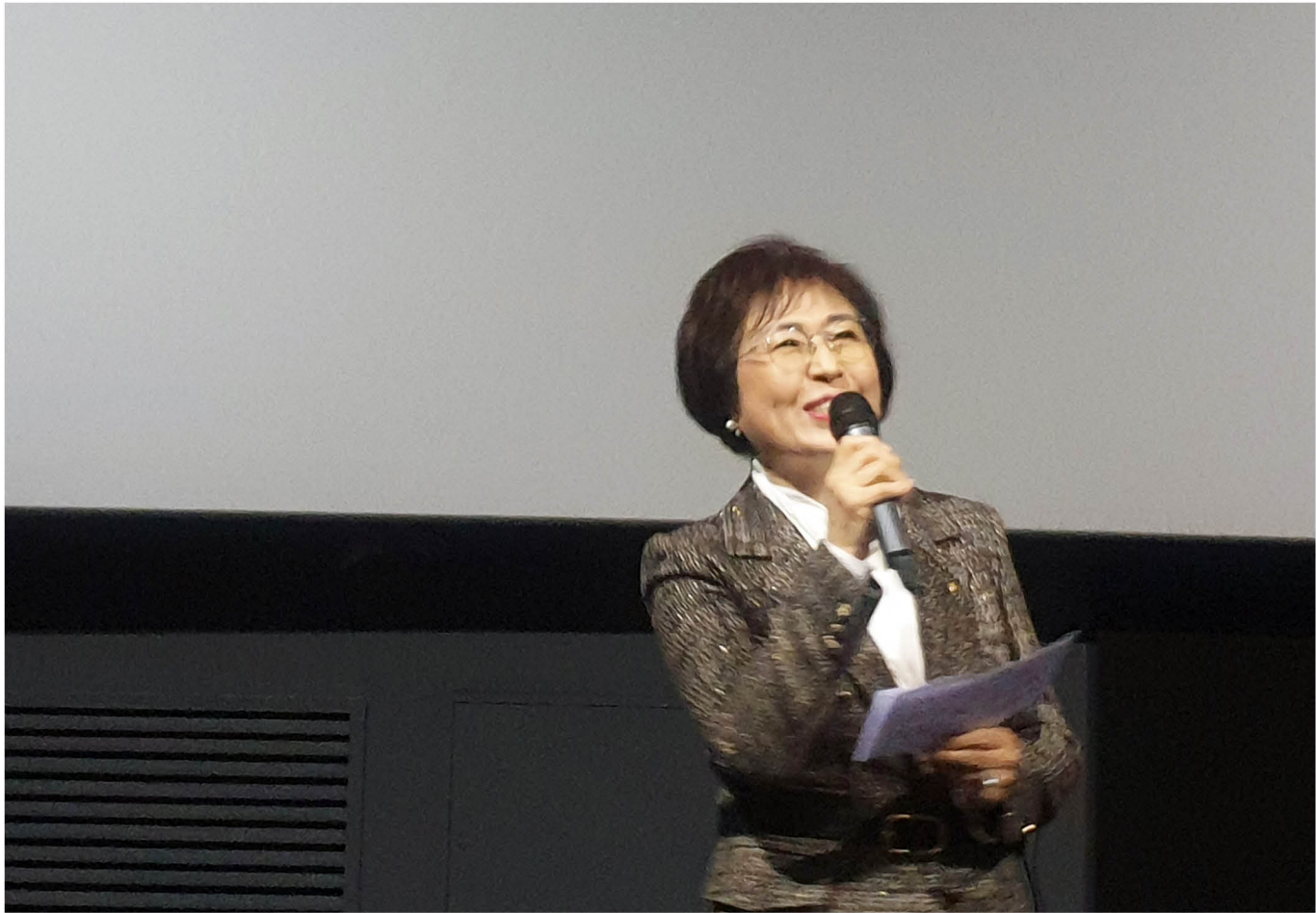
군산시 민주평통 협의회장 취임

백 회장은 2019. 9월 1일자 임기 2년의 민주평통 19기 군산시협의회장에 취임했다. 현재 협의회는 전국적으로 225개가 설립되어 있는데 여성 회장은 불과 5~6명 내외로서 군산의 경우 그간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회장직이 최초로 여성으로 바뀐 것이다. 군산협의회는 지역대표로 시, 도의원 25명을 비롯하여 직능대표로 일반인 49명 등 총 7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송미숙 시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19기 출범식은 전국협의회장과 해외자문위원을 망라하여 청와대 영빈관에서 거행되었다.

2019년도 주요 사업 실적

백 회장 취임 후 9월23일 1차 임원회의를 시작으로 19기 협의회가 출범하면서 10월 8일 리츠프라자호텔에서 가진 취임식과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및 19기 활동방향 보고 행사에는 전북부시장과 자문위원, 내빈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또한 10월 15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2차 임원회의는 임원진 12명과 하반기사업 논의를, 그리고 군산시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바 있으며,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19기 자문위원 통일역량 워크숍은 30명이 독도를 방문, 국토의 정체성과 영토문제(독도)관련 강의와 함께 독도경비대에 위문품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영토 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되새기기도 했다.





11. 12 통일 '우리 지금 만나' 영화상영



11. 12 '우리지금 만나' 감독과의 시간

11월 12일 군산롯데시네마에서의 평화와 통일 영화 감상 ('우리 지금 만나')행사에는 자문위원과 시민 등 100여명이 동참, 감동에 젖기도 했으며, 이후 영화 '카트'의 부지영 감독, '체포왕'의 임찬익 감독을 초청, 토크타임을 가지기도 하고 개성공단 관계자 및 통일부 관계자들과도 토크타임을 가짐으로써 남북화해협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큰 보람을 갖게 되었다. 11월 15일에는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지역 협의회장과 평화통일포럼 회원들 간의 '동북아의 격변하는 정세와 남북한 관계'에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11월 19일엔 평통 김제시협의회 주관으로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에서 전북지역 자문위원 등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수를 가진바 있는데 통일 강연과 협의회별 발표,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11월20에는 군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문위원과 새터민, 봉사자 등 60명이 참여,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김장나눔 행사로 북한식, 남한식 김장 담그기를 통해 서로의 김장문화를 비교 체험하는 행사를 가진바 있으며, 11월 26일에는 협의회장과 간사, 여성 자문위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여성평화공감 한마당' 행사 관련 논의를, 12월 3일엔 라마다호텔에서 자문위원과 내빈 등 52명이 참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대내외정책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가진 전북지역 간부위원 워크숍에는 여성분과위원장과 행정 실장이 참석, '민주평통의 역할 논의 및 분과별 토의'와 함께 전문가 강의를 있었으며, 12월 10일 전주 그랜드힐스톤 호텔에서의 '전북여성 평화공감한마당행사'에는 자문위원 14명이 참석, 토크콘서트와 평화퍼포먼스 등의 시간을, 이와는 별도로 자문위원 및 시민 40명은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둘러봄으로써 문화와 역사 현장을 견학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이를 뒤인 12일에는 자문위원 및 고교생 32명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국회를 방문했고, 20일에는 전북대 인문사회관에서 열린 평통 전북지역회의에는 자문위원 등 5명이 참석, 주제발표 및 토론과 함께 포럼회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진바 있으며, 23일에는 협의회 사무실에서 임원진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사업보고(안) 및 2020년도 사업계획(안)을 협의했다.

2019 한해의 대미를 장식하는 전주 그랜드호텔 행사는 활동평가회 및 모범자문위원 표창수여식으로 마감했는데 돌이켜 보면 회장 취임 불과 4개월 기간이지만 숨 돌릴 새 없이 역동적으로 소임에 충실하려 했던 기간이었다. 백 회장은 이에 대해 무엇보다도 회장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대충 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외유내강의 성격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크다.

2020년도 공익사업 추진계획

평통 군산협의회 2020년도 보조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통일강연회와 통일리더십 시민 현장견학,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청소년 통일공감 체험학습을 비롯하여 새터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자문위원 통일역량 워크숍 등의 큰 주제 안에 세부적으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있다. 백 회장은 아직 취임 초기이지만 남북관계전문가들로부터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등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게 큰 소득으로서 이런 저런 행사로 참으로 바빴던 한해였다는 말을 들려준다. 이로써 무엇보다 민주평통은 조국을 위한 봉사 기구라는 것에 자부심이 크고 이념에 따른 사회적 갈등 치유가 시급한 만큼 이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생각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이에 따라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좀 더 사업의 규모를 다각적으로 키우고 싶다는 포부도 밝히는 백 회장은 간혹 주변에서 정치에 꿈이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한다면 워낙 정치에는 관심도 없고 성향도 맞지 않는다면 하늬 두 쪽이 난다해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손사래를 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협의회
군산시청 3F
063-453-4770

“한 평생 자연과 함께” 이소암 시인

자연을 담은 시 작품에 담아
맑고 순수한 ‘서정시’ 지향

글 | 김혜진(편집위원)
새군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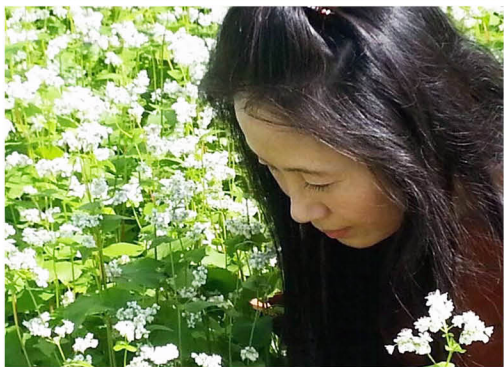
“자연의 존재, 소리와 노래를 한 글자 한글자에 담아 내려
고 했습니다. 뽐내지 않고 향기를 뽐내며 사람들에게 영
감을 주는 꽃처럼 제 작품도 자연을 지향합니다.”

이소암 시인. 그녀는 시집 ‘부르고 싶은 이름 있거든’을 통
해 한 자 한자 정성스레 써 내려간 시들을 공개했다. ‘그리
움’이라는 감성을 녹여낸 시집을 통해 독자들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군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서울의 한
국문학교에서 4년간 쟁쟁한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받았
습니다. 2000년 ‘자유문학’으로 등단했고, 지금까지 시집
으로 ‘내 몸에 푸른 잎’, ‘눈·부·사·다·그·꽃!’, ‘부르고 싶은 이
름 있거든’을 발간했습니다. 마음 속의 감정, 생각들을 함축
된 단어들로 쓰는 일은 아직도 어렵지만 아직까지 펜을 놓
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쓰는 게 참 좋아요.”

이소암 시인의 작품은 깔끔하고 정제돼 있다. 시 한 편을
쓰기까지 썼다 지웠다를 몇 번이나 반복하는 그녀는 자연
을 담은 맑고 순수한 ‘서정시’를 지향한다.





외로운 소녀, 책과 가까워지다

김제 태생의 이소암 시인은 오빠 다섯을 둔 고명딸로 태어나 외로움을 많이 탔다. 혼자 오빠 방에서 책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 자연스럽게 문학과 가까워졌다. 남자 형제들이 팽이 치기를 하러 나가면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밖에서 놀고 있는 오빠들 좀 찾아 오라”며 심부름을 시키는 소일거리를 도맡아 했다. 남자들 세계에서 같이 놀 수 없었던 어린 그녀는 책을 읽으며 외로움을 달랬다.

“언니 오빠들과 할 일이 없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 중·고등학교 내내 문예반 활동을 하게 됐어요. 당시 저를 가르치던 국어, 문학 선생님 두 분 다 시인이셨는데, 오송희 사건에 연루되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한 선생님께서는 묵묵히 수업만 하시고, 다른 선생님께서는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하신 총각 시인이셨는데 제자인 저를 무척 아끼셨습니다.”

시인이라는 꿈을 꾸며

유년시절 이소암 시인은 회사를 꿈꿨다. 동네 어른들은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레 길을 비켜 주셨다. 중학교 졸업 후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은 시대. 일하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커리어우먼이 되고 싶다는 거창한 이유보다 멋진 정장을 입고 회사를 다니는 모습을 동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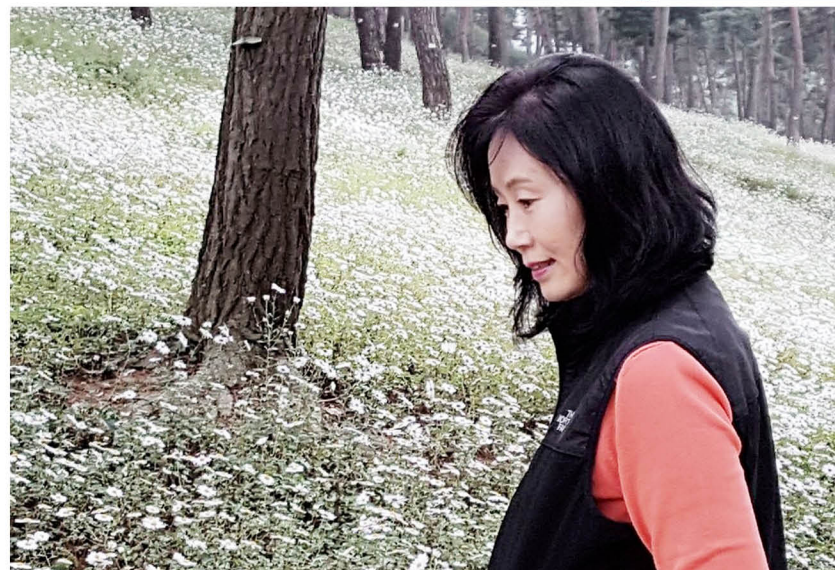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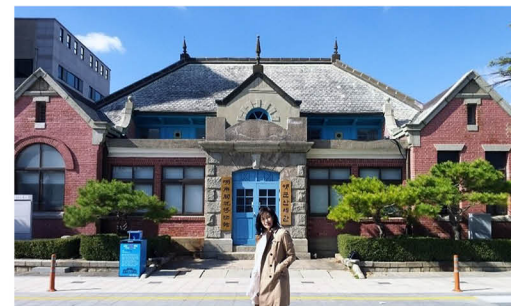
“학창 시절만 해도 시인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선생님들에게 글 잘 쓰라며 칭찬받을 때마다 ‘내가 문학에 소질이 있나보다’라고 생각만 했고, 시인의 꿈은 한 발짝 천천히 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한국문학학교에서 4년간 글 공부에 전념했다. 한국문학학교는 국내 교과서에 나오는 걸출한 선생님들이 시, 소설 등 다양한 장르를 가르치는 곳이다. 그녀는 이곳에서 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국내 교과서에 나오는 선생님들이 시, 소설 등 다양한 장르를 직접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이다. 1993년(1회) 시작한 군산 백일장대회에 자원해서 나갔다. 이후 ‘청사초롱’에서 작년까지 활동했다.

한국작가회의, 전북작가회의 회원이며 2014년부터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예창작 전담교수로 예비작가반 글쓰기 교육을 맡고 있다. 2016년도부터는 인문학 강의도 펼치고 있다.

“1993년 군산 백일장대회에 나가고 이후 ‘청사초롱’에서 활동했어요. 글은 쓰면 쓸수록 매료되더라고요. 지금은 나운동에서 30년 가까이 독서·논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닮고 싶은 마음 담아

그녀는 서정시를 지향한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자연을 담은 맑고 순수한 서정시' 정도로 할 수 있겠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만나서 최선을 다하고 존중은 하되, 집착하는 편이 아니라는 그녀는 의연히 자라나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를 사랑한다. 그녀의 자연 사랑은 3집 '부르고 싶은 이름 있거든'에도 은근하게 녹아 나온다.

“시인이려면 오직 작품을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편을 쓰더라도 제대로 된 시, 자연을 닮고 싶고, 맑고 순수한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녀는 일상에서 얻은 감정과 자연을 향한 작은 깨달음을 시로 담아냈다. 그렇게 써 온 시들이 한데 모여 작품이 되었다.

“꽃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혼자 피어나서 매서운 겨울 바람을 이겨내고 꽃과 잎을 피워내는 의연함이 좋아요. 자연 지향 자연에 대한 시를 많이 써요. 1집의 경우 나에 집착을 했다면 2집은 상대에 대한 집착, 3집은 우리에게 대한 컨셉을 정하고 시를 쓰려고 했는데 곳곳에 자연에 대한 시도 많아요.”

한 편의 시를 쓰더라도 고민과 퇴고를 반복해야 한다는 이소암 시인. 그녀는 자연을 사랑하며 일상의 희로애락을 글 속에 담고 있다.



꽃 핀다고 봄이 오는 건 아니겠지요
바람 분다고 꽃이 지는 건 아니겠지요
꽃 피어도 그대 소식 없으면 봄일 리가요
바람 분다고 그대 없이 지는 꽃이 꽃일 리가요
무너진 담장 틈 목 내민 풀,
저 홀로 제 이름 쓰게 하려면
바람 불어도 지지 않는 꽃 피게 하려면
그대여, 오세요
날아가는 새 그림자조차 낳지 못하게, 서둘러 오세요
그대가 도착해야만 비로소 봄, 아니겠는지요

세 번째 시집
'부르고 싶은 이름 있거든'
-전보-

이소암

군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
2000. '자유문학'으로 등단
시집 <내 몸에 푸른 잎> <눈·부·시·다·그·꽃>
<부르고 싶은 이름 있거든>
한국작가회의, 전북작가회의 회원
2014.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예창작 전담교수





동태찜



생선구이

도심 속의 '섬', 그곳에 가볼까

전종현·유주리 부부의 '섬' 이야기
2년 전 지곡동 동신아파트 사거리에 '섬' 개업
가족 경영으로 손님에게 '가까이 가까이'

글 | 채명룡(편집장)
cmr0118@naver.com



해물전골



동태탕



전종현 유주리 부부



아스라하지만 언제나 한결같고 아련한 추억을 주는 섬. 전종현·유주리 부부는 음식점을 하면서 가까이 가보고 싶은 그리운 섬을 닮아가고 있다.

군산 최초로 황제해신탕(닭, 전복, 해삼, 랍스터 등과 해물을 재료로 하는 요리)을 개발하고 10년 넘게 음식점 ‘섬’을 지키며 나름 눈높이를 갖춘 장소로 성장시켰던 부부이다. 이들은 나운동 은파 앞의 ‘섬’을 접고 2년 전 지곡동 동신아파트 사거리에 다시 ‘섬’을 열었다.

160석이 넘는 대형업소에서 가족경영이 가능하도록 가게를 확 줄였다. 작지는 않지만 규모를 줄이면서 잃어버린 것도 많았다. 오늘날 서민들이 즐겨 찾는 메뉴로 바꾸었고 손님 층도 바뀌었다. 그래서인지 지곡동 ‘섬’은 부담 없는 손님 발길이 부쩍 늘었다.

오늘처럼 코끝이 빨개지는 날엔 도심 속의 ‘섬’을 찾아가 칼칼한 국물에 찌주 한잔 기울여보자.

익숙한 맛, 그러나 기본은 생선

2년 전 지곡동 동신아파트 사거리에 새로 문을 연 ‘섬’은 어떻게 변했을까. 우선 여기에서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동태탕’(16,000원부터), ‘명태찜’(18,000원부터)과 ‘생선구이’(13,000원), ‘보리굴비’(16,000원), ‘모듬게장’(35,000원부터) 등을 주 메뉴로 내놓고 있다. 고급 횡집에서 서민들이 찾기 쉬운 음식점으로 이미지가 바뀐 셈이다.

“동태탕은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대중적인 음식이잖아요. 비슷비슷한 맛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평범함 속에 은은히 맛을 내는 감칠맛이 아무래도 다를 거예요. 생선 전문점 10년의 국물 육수 비법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릴에 구워 내놓는 생선구이의 물도 좋다. 굴비, 박대, 가자미, 콩치, 고등어 등등 5~6가지의 생선이 나오는데 과하지 않게 구워서인지 자꾸 젓가락이 간다. 보리굴비의 경우 군산에서 최저가로 제공되는데 물이 좋은 생선을 들여놓아서인지 선호도가 높다.

원재료가 신선해야 맛이 잘 나온다는 점은 이 가게의 기본이다. 생선은 물론이지만 거기에 곁들여 나오는 채소 등을 무조건 물 좋은 물건을 쓴다는 점이 웬만한 음식점과 다르다. 또 생선은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좋은 물건을 비싼 가격에 들여와 손님들에게 싼 가격에 내놓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로 했다.

“우리 가게에서 내놓는 ‘동태탕’이나, ‘생선구이’, ‘보리굴비’ 등등의 메뉴는 음식 만드는 과정에서의 기본을 지키고 있지요. 재료가 충실해야 맛이 잘 나오거든요. 군산에서만큼은 어지간한 음식점에 비추어 가장 좋은 물건을 쓰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섬’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나를 잃으니 다른 하나가 들어왔다

지곡동 ‘섬’은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집으로 변신했다. 주인 가족이 직접 운영하다보니 손님들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전에 했던 나운동 ‘섬’에서는 1인분에 5~6만원짜리 회정식도 있었지만 1만원짜리 점심상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섬’은 고급 음식점이라는 인식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지곡동에 문을 열면서 자존심이 살짝 허락하지 않았지만 부부는 현실에 순응하기로 했다.

“지난 8년 동안의 나운동 시절에 장사는 잘됐지만 해도 해도 되돌이표처럼 형편은 활짝 피지 않았죠. 나가는 돈은 눈에 드러나지 않거든요. 식자재는 물론 직원 인건비 등등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심각하게 가족 경영을 고려했어요.”

신선하지 않으면 모든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다는 철칙을 지켜 나가는 부부. 이런 부부가 가게를 줄이면서 물 좋은 재료를 들여와 손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가격대비 만족도가 높아지리란 느낌이다.



해신탕

식사류	시리류
동태탕 (x) 32.0 (㉸) 24.0 (㉸) 16.0	곤이사리 5.0
명태찜 (x) 36.0 (㉸) 27.0 (㉸) 18.0	알사리 5.0
생선구이 13.0	수제비추가 2.0
보리굴비 16.0	공기밥 1.0
모듬게장 (게, 전복, 소라, 대하) (x) 50.0 (㉸) 35.0	주 류
	소 주 4.0
	맥 주 4.0
	음료수 1.0

‘섬’의 메뉴



‘섬’의 기본 상차림



전종현 대표 가족

“가게를 줄이다보니 불편한 점도 있는데 종업원들이 하던 일들을 가족들이 다 해내다보니깐 무척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인 다역’의 시대에 맞춰 좋은 음식을 만들고 좋은 서비스로 장사해야 한다는 숙명을 느끼고 있죠.”

서민식탁으로 변신을 거듭했지만 처음 요리를 만들어 내놓았던 ‘황제해신탕’은 예약에 한해 주문을 받고 있다. 가격은 12만원이지만 5~6인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니 정성과 맛에 비해 비싼 건 아니다. 또 백숙도 주문할 경우 폭 삶아서 내주고 있다.

‘맛’으로 만나고, ‘봉사’로 보답할 터

남편 전종현 사장은 청년 때부터 사업을 할 정도로 수완이 좋았다. 가까운 분의 소개로 커피숍을 하던 아내를 만나 3년여 데이트를 했고 서른이 넘는 지난 2005년 결혼했다. 1남 1녀를 두었다.

‘섬’은 비용도 어시장에서 생선을 다뤄 팔았던 전 사장의 경험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처녀총각 때부터 칵테일 바와 커피숍 등을 하면서 나름 서비스 정신이 있던 부부의 수완도 한 몫 했다. 이처럼 ‘섬’은 부부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가족을 돌봐야 하지만 일정한 생계만 유지된다면 봉사하는 삶을 사는데 주저함이 없을 겁니다.”

전 사장은 나운동에서 음식점을 할 때에도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단체를 통하여 여러 가지 봉사를 했다. 가게 규모를 줄이면서 개인 봉사를 줄였지만 군경총(2012년), 군장대(2012년), 서군산로타리(2013년)를 통하여 봉사를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사회복지장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게를 열면서부터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준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도움이 컸다. 가족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듯 전 사장 부부가 ‘섬’을 지키는 원동력 또한 가족이다.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 가게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보기와 달리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봉사활동에 나서는 게 늘 좋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이 힘들게 할 땐 입지만 기꺼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이젠 숙명으로 받아들여야죠.”

아내의 투정이 입지만은 않게 들렸다. 서민들이 찾기 어려웠던 대형 음식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섬’의 변신은 우연이 아니다. 가족경영으로 한층 더 성숙한 음식 맛과 ‘가성비’ 높은 메뉴로 손님들에게 다가가길 기대한다.

생선·해물전문 ‘섬’
군산시 지곡로3(지곡동 541-1)
(예약) 461-2121



백숙



개그맨 윤형빈과 엑스레벨 최재석 대표

캠핑을 혁명하다 “소소한 캠핑”

전북 유일의 캠핑용품 제조업체
‘엑스레벨과 슈퍼에너지엑스’

글 | 장인수(편집위원)
새군산신문 부국장
lsj1453@nate.com

워라벨 분위기 확산에 따라 가족과 함께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워라벨이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준말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다양한 캠핑용품이 출시되는 등 ‘캠프닉’(캠핑+피크닉) 시장도 떠오르고 있다. 기존 캠핑이 고가의 전문 장비를 갖추어야 해 부담이 컸다면 캠프닉은 장비나 요리에 대한 부담 없이 간단한 물품만 챙겨 떠날 수 있어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지역업체가 전북유일의 캠핑용품 제조업체를 창업, 주목을 끌고 있다.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멀티화로대

군산에 등지를 튼 전북 유일의 캠핑용품 제조업체인 엑스레벨(X-LEVEL, 대표 최재석)이 세상에 단하나 뿐인 캠핑 화로대인 ALL DAY 멀티화로대를 개발, 첫 출시를 준비하며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설 예정이어서 지역내 스타트업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약 1년간의 연구 개발과 준비 끝에 제품 출시에 들어간 엑스레벨의 야심작인 멀티화로대 X-시리즈는 모두 4종, ALL DAY 멀티화로대라는 명칭답게 기존 외국 유명제품에만 의존하던 캠핑 화로대의 신 혁명으로 단순한 숯불구이용과 꼬치구이 등에만 활용되던 화로대를 넘어 오븐 기능을 갖춘 다양한 퍼포먼스를 가능케 했다.

단순 숯불구이에서 부터 화로에 오븐캡을 설치하고 뒤집어 오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연소대를 상하로 조절해 각종 일반 버너의 높이에 맞추고 하루 종일 버너 스탠드으로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캠프파이어도 가능할 뿐 아니라 화로만 꺼내 테이블 화로대와 버너스탠드나 숯불구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등 기본 구성과 형태를 과감히 바꿔 기존 화로에서는 구현 할 수 없는 캠퍼들만의 독창적이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구사할 수 있게 했다.



ALL DAY 멀티화로대를 이용한 숯불구이



ALL DAY 멀티화로대 다양한 퍼모먼스

또한 그동안 기존 캠핑 화로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화력조절도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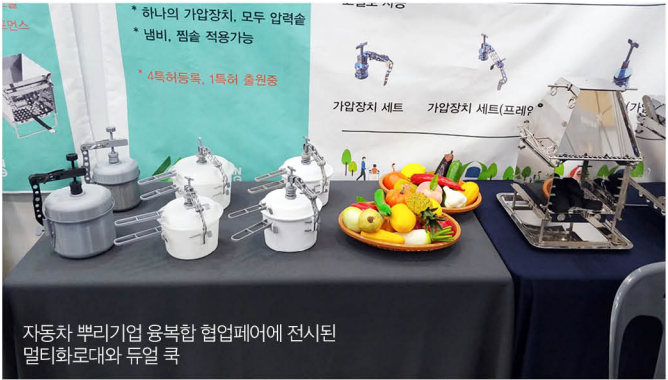
연소대의 상하 승강으로 최소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다.

엑스레벨은 ALL DAY 멀티화로대 출시와 함께 3개의 특허, 4개의 디자인등록, 2개의 상표등록 출원 중이며 국내 캠핑용품 시장은 물론 동남아 수출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석 대표는 “출시를 앞두고 있는 멀티화로대는 기존 화로의 틀을 과감히 버리고 전혀 다른 방식의 사용법을 제시함으로써 캠핑용품의 새로운 가능성에 과감히 도전한 세계 유일의 멀티화로대다”고 설명했다.

특히 “ALL DAY 멀티화로대는 멀티기능성 화로대로 숯불구이, 오븐, 테이블화로, 캠프파이어, 버너스탠드, 우드스토브, 차콜 스타터까지 다양하게 캠퍼의 목적에 맞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장비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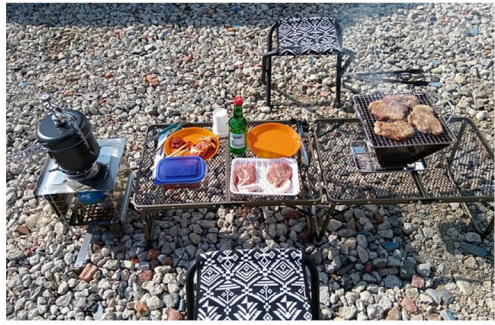
최 대표는 우선 2월중 ALL DAY 멀티화로대 X-7(4~5인용) 500여개를 양산해,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와디즈를 통해 본격 펀딩에 들어가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런칭을 비롯 G마켓과 쿠팡 등 오픈마켓을 통해 세상에 내놓을 예정이다.



ALL DAY멀티화로대와 함께하는 '소소한 캠핑'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장 상을 받은 압력솔 '듀얼 콕'



캠프파이어로 변신한 멀티화로대



'소소한 캠핑' 창업멤버인 김완수 대표(좌)와 최재석 대표

또 하나의 캠핑용품 혁명 '압력코펠'

엑스레벨 최 대표와 '소소한 캠핑'이라는 캠핑용품 제조업에 뛰어 든 수퍼에너지엑스(대표 김완수)의 캠핑용품계의 혁명 '코펠겸용 압력솔' 역시 캠핑용품 시장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김 대표가 개발한 압력코펠은 압력솔과 코펠의 융합을 통해 무게와 부피의 혁신적 축소를 이뤄냈다. 조리용기와 압력용기의 융합으로 조리중 가압과 압력조절이 가능하며 냄비는 물론 찜솔기능도 가능하다.

김 대표의 500그램 압력솔 '듀얼콕'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 열린 '대한민국 발명특허 대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을 받기도 했다.

수퍼에너지엑스의 듀얼콕 역시 현재 4개의 특허를 등록했고 1개의 특허를 출원했다.

엑스레벨 최재석 대표와 수퍼에너지엑스 김완수 대표는 "출시를 앞둔 멀티화로대와 코펠 겸용 압력솔 등 '소소한 캠핑'의 제품은 무엇보다 워라벨 시대에 맞게 안전하고 간편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효율적인 캠핑용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ALL DAY 멀티화로대 X-7 출시를 기점으로 국내에 이어 동남아와 아시아 캠핑시장을 겨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군산 GSCO에서 열린 제3회 자동차·뿌리기업 융복합 협업페어에서 출시 작품을 선보인 데 이어 오는 2월과 6월 킨텍스에서 열리는 '캠핑페어'에도 참가,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대한민국발명특허 대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을 받은 김완수 대표



ALL DAY 멀티화로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설명하고 있는 최재석 대표





‘암 투병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죠’

문화재해설사·숲해설가·시낭송가
김형순 씨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문화재해설사, 숲해설가이면서 시낭송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형순 씨(48). 차분하고 단아한 외모에 가까워서 듣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말씨의 그녀가 이토록 대중을 상대로 다방면에 걸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게 선뜻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다. 불과 8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의 변화에 적응하며 감사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장수 뜰봉샘에서 남편과

인생의 터닝포인트

든든한 남편과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가 맨 처음 시작한 일은 육아관련 사업. 지난 2011년도 9월 나운동에 초어린이집을 개원함으로써 원장 직함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만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그녀는 청천벽력 같은 암(Breast cancer)진단을 받는다. 수술을 거쳐 항암 투병생활이 시작되었다.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은 정리해야만 했다. '내게 암이라니...' 고통과 좌절감으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이때 가장 힘이 되어준 사람은 남편이었다. 암 투병 중에도 항상 곁을 지키며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탈모로 초췌해진 모습을 보면서도 '당신은 여전히 예쁘다'는 말로 격려해주었다. 틈틈이 운동도 데리고 나가 아내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는 세상에서 제일 듬직한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였다.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을 주는 변함없는 남편, 새삼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복 하나는 타고났다는 흐뭇함에 혼자만의 미소를 지을 때도 많았다.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였고 방사선 치료와 함께 남편의 가료를 받으면서 병세는 몰라보게 호전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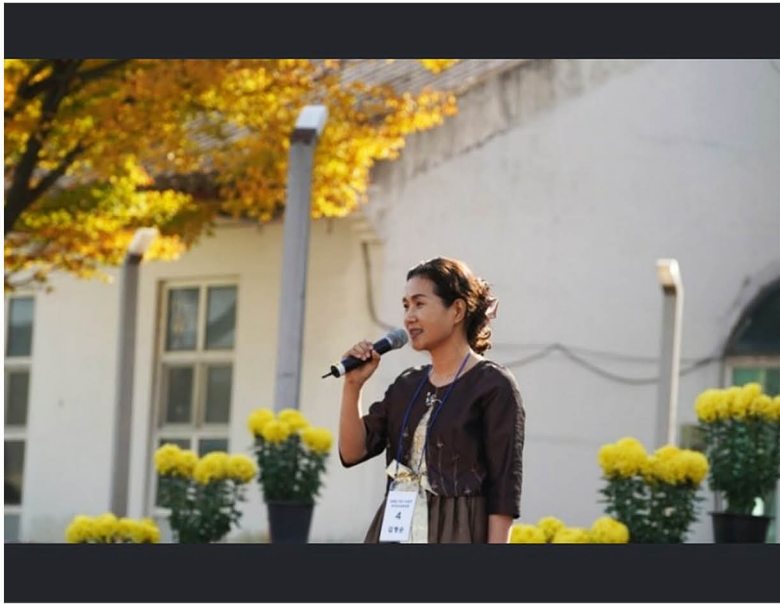
월명동 일본인(히로쓰)가옥 안에서



- 문화재 해설사 -

자신에게 닥친 시련에 적응하며 현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트이기 시작했다. 예전의 머리카락도 복원되고 완치에 들어서면서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시에서 문화재 해설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된다. 그녀는 곧바로 지원, 근대교육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았다. 이후 군산항쟁관, 일본인(히로쓰)가옥 등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해설사 일을 하게 되는데 아프기 이전만 해도 소심하고 소극적이었던 자신이 이제 대중 앞에서 해설을 하고 있다니 스스로가 이렇게 변모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던 터라 가슴이 벅찼다.

그녀는 요즘도 학교 측의 신청에 따라 초등 3학년 교과과목을 맡아 강의도 나가면서 해설사 보수교육만큼은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암 발병은 그녀를 변화시킨 일대 전환점이 된 셈이다.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는 말도 있듯 고통과 절망으로 삶이 정지된 듯했던 그 시기를 거치며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새로운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인생은 새옹지마라거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거나 모진 태양과 폭풍우를 견뎌낸 꽃이 더 진한 향기를 발한다거나 하는 말들은 모두 자신을 두고 하는 말 같았다.



- 숲해설가 -

내친김에 그녀는 숲해설가 자격도 취득했다. 산림청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전북 생명의 숲'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현재 시내 각급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매년 4월부터 7·8월을 뺀 11월까지 6개월에 걸쳐 활동한다. 숲해설가는 아이들에게 자연체험과 생태놀이 등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연과 친해지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 말하는 그녀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당시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보며 일찍이 숲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도시권의 아이들은 자연과 접할 기회가 적다보니 흙과 돌, 애벌레, 곤충 등을 만지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자연에 대한 정서적 결핍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 눈높이에서 놀이를 통해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화될 때 자연도 인간도 더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 이후 아이들이 자연을 대하는 눈이 달라지고 밝게 변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의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 말한다. 이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보다는 같이 자란다는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대함으로써 얻는 성과랄 수 있어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오늘의 이 즐거움과 자긍심이 또 내일로 이어지도록 다짐을 늦추지 않는다는 말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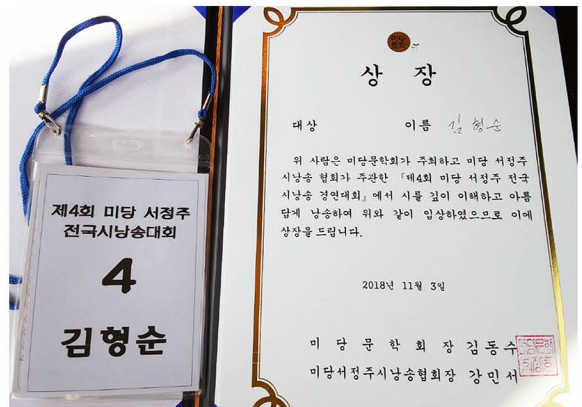


- 시낭송 대상 수상 -

그녀는 2017년도, 개북동 시민예술촌에서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시낭송 강습(권수복 시인)에도 참여했다. 수업 첫날 권 시인이 들려준 시가 너무 좋아 집에 돌아와 권 시인의 시집 한 권을 다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밀려와 눈물이 났다. 권수복 시인은 그해 5월 출판한 '눈물이 피워낸 꽃'에서 삶에 대한 관조와 순박한 멋이 깃든 130여 편의 시를 통해 감동과 친근감을 안겨주는 시인으로 수강 제자들 중 시낭송대회에서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을 정도다.

시집 한권을 다 읽고 난 뒤 그녀는 밀려오는 감동을 억제할 수 없어 권 시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심정을 전했다. 이후 열심히 강습에 참여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는 시의 내용에 몰입하며 낭송 연습에 몰두했다. 처음엔 대중 앞에서 낭송한다는 것이 쑥스러워 심적 부담감이 컸지만 반복적 연습으로 극복해 나갔다. 수강 3개월 무렵 그녀는 서천에서 열린 신석초 시인 시낭송 대회에 참가했다. 설렘 반, 긴장 반의 첫 출전 무대, 그녀는 최선을 다했고 생각지도 않게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주위의 축하 속에 더욱 자신감이 붙는 계기가 된다.

이듬해인 2018년도, 고창에서의 서정주 시인 시낭송대회에서는 경험도 있던 터라 처음보다 긴장은 덜했고 시어(詩語)가 가지는 의미에 몰입한 채 낭송하는 그녀의 모습은 무척이나 진지했다. 결과는 대상이었다. 낭송 경력도 일천했던 터여서 시상식에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너무 놀라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후 전국 각 지역 재능시낭송대회 우승 후 지난 11월2일 서울 본선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등 본격적인 시낭송가로 명성을 더해감으로써 자아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





시낭송이 주는 보람 중 하나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의 언어들 속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어 낭송에 몰두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감성이 풍요로워짐을 느낀다. 그녀 역시 시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교감하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예전엔 미처 느끼지 못한 변화였고 그만큼 행복했다. 이후 군산생활문화동호회 은파 행사(GM/함께 갑시다)에서는 어느 청중이 그녀의 낭송을 들은 뒤 큰 감동을 받았다고 격려를 해준 적도 있는데 이런 피드백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고 들려준다.

또한 지난 야행 버스킹 행사 때는 자신의 시낭송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친지들이 과거의 자신과는 너무도 달라진 모습이 믿기지 않는다고 너무 놀라더라는 얘기도 들려주는데 돌이켜보면 이러한 삶의 변화는 암투병이 터닝포인트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어떠한 시련이나 악운도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호운(好運)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한다.

하지만 그녀가 시낭송대회를 나갈 때마다 상을 받은 건 아니다. 예선 통과를 못했던 때도 있었다.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결과보다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만나는 시(詩)가 더 중요했고, 시와 한 호흡이 되는 것, 시인의 마음으로 들어가 공감한다는 그 자체가 더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던단다. 그래서 항상 더 배우고 노력하며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있다고 들려준다.

그녀는 지난 해 1월부터 오손도손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월 2회 시낭송 자원봉사도 하고 있다. 처음엔 반응이 별로였던 그 어르신들이 그녀의 진정성에 감화되어 차츰 마음의 문을 열고 반겨주며 서로가 같이 짧은 시를 낭독할 만큼 즐거운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문화재 해설사이자 숲해설가, 시낭송가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될 줄 꿈도 못 꿴다던 그녀가 이렇게 변모한 것은 태생적으로 이러한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었음에도 기회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내 자연 이름은 노루귀

본명 외 그녀의 자연 이름은 처음엔 노루귀였다. 2018년 3월 남편과 동행했던 내빈산 어느 숲에서 노루귀라는 들꽃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무슨 꽃일까...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이른 봄, 참나무 마른 낙엽들 틈에서 눈에 들어온 가냘픈 줄기의 작은 분홍꽃! 엷드려서 보아야 보일 정도로 가냘픈 꽃이다. 주변을 자세히 보니 하나둘 씩 눈에 들어온다. 그것이 노루귀꽃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꽃 형상이 마치 노루귀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단다.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는 고즈넉한 산 속에서 환상적인 색깔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그 꽃에 반해 이후 그녀는 '노루귀'라는 또 하나의 자연 이름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 '나비'라는 이름도 같이 쓰고 있단다. 이로 보아 본명은 김형순, 별명은 노루귀, 애칭은 나비라 해도 좋을 듯도 한데 모두 그녀에게 썩 어울리는 이름들 같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

군산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김동익 교수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그야말로 정신 차릴 수 없을 지경의 속도로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은 기존의 우리 인간의 삶과 세계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와 교육이 필요한지 궁금한 것도 사실인데 그에 대한 답을 군산대 신소재공학과 김동익 교수로부터 들어본다.



교수님,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18세기에 진행된 1차 산업혁명 이전 수천 년 동안 대다수의 인류는 농업에 종사했기에 극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농사를 짓는 일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이라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었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일을 배우는 것으로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그 성격상 대부분 부모에 의해 이루어 졌고요 하지만 산업혁명을 통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며 '앞으로 하게 될 일'도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부모로부터 전수 받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된 경제는 이후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대량생산(2차 산업혁명),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화(3차 산업혁명)를 거치며 인간이 해야 할 일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대략적 예측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교육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언제 등장했나요.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부터 기술의 진보는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상 초기에는 단순히 1~3차 산업혁명에 이어지는 ‘기술적 진보’의 다음 단계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지금은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성격 자체가 다른, 즉 제조업 분야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전반, 극단적으로는 인간의 생활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차원의 혁명적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우리 실생활 속에서의 전개 양상, 더불어 미래에 대한 예측도 궁금합니다. 예컨대 사라지는 직업도 많을 테고 새로 등장하는 직업도 있겠지요.

2,000년대 이전만 해도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제품이 출현하는데 수십, 수백 년의 간격이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1년에도 몇 건씩의 새로운 기술, 제품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미래기술과 관련된 어떤 보고서는 향후 20년간 기술 수준이 현재의 100만 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속도로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니깐요. 몇 년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앞으로 10~20년 후에 현재 있는 직업 중 50%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거니와 이와 유사한 미래 직업 예측 관련 자료가 부지기수일 정도로 향후 직업세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지금까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영역의 일들을 기계(컴퓨터)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판매원 등 단순 업무는 물론 스포츠 심판, 의사, 약사,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지식과 판단력을 요했던 분야를 망라하여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여겼던 작곡, 문학, 미술 등 창작분야까지 기계학습(Deep learning)을 통해 컴퓨터가 인간에 버금가거나 능가하는 창작물을 폭발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산타루즈캠퍼스 음악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코프(David Cope)는 기계학습(인공지능)을 활용한 작곡프로그램을 만들어 바흐 풍의 음악을 작곡, 작곡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음악 축제에서 연주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엄청난 찬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 곡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작곡된 사실을 안 음악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합니다.

논리적 사고역량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감성 기능은 전무한 컴퓨터가 작곡한 음악이 과연 인간의 감성에 깊은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바둑만큼은 컴퓨터가 인간을 능가할 수 없을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알파고가 세계 최고 바둑 고수인 이세돌을 4:1로, 커제를 5:0으로 이기기 전까지는 컴퓨터가 작곡한 피아노소나타 5번이 모차르트 피아노소나타 21번만큼 감동을 줄 수 있을가에 회의적이였겠지만 이제 그런 의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통적으로 작곡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문학, 미술 등 다른 분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되었을 때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와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할 텐데 그에 대한 교육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겠군요.

맞습니다. 앞으로의 하게 될 일을 배우는 과정인 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20~30년 후 인간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어떻게 효과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때에도 여전히 의사, 변호사, 군인이 필요하고 음악가, 회계사, 조종사, 운전사, 교사, 약사, 요리사, 간호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직업군 중 상당수는 컴퓨터나 로봇이 대체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과연 그러한 교육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미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미래사회를 대비한 현재의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미래교육을 위한 포럼’에서도 미래 대비 교육과 관련한 수많은 논의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초등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게 될 20여년 후 인간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러한 고민 없이 자녀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현재의 기준에서 좋은 직업으로 여겨지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데 얼마 전 큰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TV드라마 ‘스카이캐슬’이 그 예를 잘 보여준 바 있습니다.

IBM은 인공지능 플랫폼 ‘왓슨(Watson)’을 개발해 의료, 은행, 보험,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 인간이 수행해왔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왓슨은 이미 2011년 미국 ABC방송의 유명 퀴즈쇼 제퍼디(Jeopardy)에서 우승하며 주목을 받은바 있고, 미국 앤더슨 암센터에서는 왓슨을 이용하여 전문의보다 정확하게 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아이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스카이캐슬’ 수준의 교육 지원을 하는 것이 부모의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카이스트 교수이자 ‘빅퀘스천’의 저자인 뇌 과학자 김대식 교수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생들에게는 분명히 다른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다. ‘국·영·수’ 학습은 200년 전 프랑스 공교육 시스템입니다. 산업혁명 당시엔 유럽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부들을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했어요. 글을 읽고 쓰고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친 거죠.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국·영·수’가 아닌 미래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는 김대식 교수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저자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박사도 그의 또 다른 저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2050년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돼 있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따라서 지금 태어난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김대식 교수와 유발 하라리 박사 등 미래 세계를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미래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 교육이 4C(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 Creativity-창의성, Communication-소통, Collaboration-협력)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다수 교육전문가들의 주장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며, 낯선 상황에서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필요 없을 지식과 사라질 직업을 위한 지금의 교육은 시간 낭비” -앨빈 토플러-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인쇄술이 그랬고, 자동차, 전화, WWW(world wide web)가 그랬지요. 스마트폰 다음으로 또 무엇이 나타나 세상을 바꾸어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러한 기술이나 제품의 출현 속도가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20년 전만해도 당연히 되던 평생 직업 개념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입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경제활동기간에 몇 차례의 직업을 바꾸어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직업을 바꾼다는 것은 개인에게 엄청난 변화이자 충격으로서 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역량, 정신적 유연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교육과 관련된 우리사회의 주된 이슈는 특목고를 유지할 것인가, 정시 비중을 확대할 것인가 등 오로지 대학입시와 관련된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전해온 교육시스템이 여전히 미래에도 유용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미래를 기준으로 논의되고 확립되어야 할 교육 패러다임이 지나치게 과거 기준으로 담보되고 있는 지금의 현상에 대해 10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했던 말은 우리에게 준엄한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미래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사라질 직업을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씩 공부하고 있다”



경자년(庚子年) 새해, 빨라진 총선시계

공직선거법 개정, 총선 본격화
총선 후보들 민심 확보 광폭 행보

글 | 장인수(편집위원)
새군산신문 부국장
isj1453@nate.com

제21대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우여곡절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며 제21대 총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요동치고 있고 중앙정치권의 움직임은 군산지역 총선 판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도 주목되고 있다. 21대 총선은 지난 17일 부터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으로 부터 오는 3월 26일 부터 27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거쳐 4월 15일 본선이 치러지게 된다.

군산지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18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를 선언했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역시 19일 출마선언 후 복당절차를 마무리하며 당내 경선과 본선 경쟁 대열 합류를 위한 광폭행보에 나섰다.

신 예비후보와 김 전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행정관과 대변인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당과의 협력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책임자를 자처하며 불꽃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신 예비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위기와 고용위기로 침체에 늪에 빠진 우리 군산 지역경제의 절박함과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부딪힌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성에 몸을 아끼지 않고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고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의 추진력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김의겸



신영대

신 예비후보는 출마선언 이후 출근길 거리인사를 이어 군산시 인구정책 시민원탁토론회와 청소년 수련관 성과보고회에 참석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군산시민의 민생, 경제에 대한 애로와 문제해결을 위해 광폭행보로 군산시 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의 고충과 복지환경을 경청하는 등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제일고 선후배인 전 청와대 행정관과 대변인 출신의 이들 두 후보들의 당내 경선가도는 접전에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이후 사고 지구였던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을 맡아오며 당내 조직을 추스리며 지지세를 확산시켜오던 신 예비후보의 경우, 황진 전 군산혁신성장특위 위원장이 총선 행보 등 일신상의 이유로 정치일정을 중단에 이어 김 전 대변인의 출마선언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황진 전 위원장의 핵심 인사들의 중심 이동은 다가올 민주당내 경선에 어떠한 파장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신 예비후보는 전 지역위원장이

라는 프리미엄속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도의원들의 든든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당내 경선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민주당 경선과 함께 재선에 이어 3선에 도전하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재선의 관록과 함께 국회 정책통이라는 점을 부각,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중앙정치 무대에서 확고한 정치력을 인정받고 있어 여당으로 견고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도 버거울 상대일 수 밖에 없다. 다만 김 의원이 다가올 총선정국에서 바른미래당을 탈당, 무소속 행을 택하는 등 상당한 변수가 예측되고 있어 이 역시 군산지역 총선판도를 어떻게 끌게 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

민주당 두 후보가 여당과 핫 라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재선의 김 의원은 독보적인 국가예산 확보와 최근 정치이슈인 선거법 개정안 통과 등 묵직한 사안을 들어 민심을 두드리고 있다.

개정 선거법을 대표발의 했던 김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선거법과 관련 “유권자의 표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뒀고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1년간을 노력했지만 불발된 것은 아쉽다. 하지만 정치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의 사실상 주역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회 4+1 협의체 구성원으로 예산담판을 주도하며 올해 국가예산 1조 536억 확보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소룡동!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지역사회 온도 상승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2019년도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업들과 사회단체, 개인의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아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31일 군산시 소룡동 주민센터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회단체들이 있어 소룡동에 살기좋은 명소로 거듭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룡동에는 꾸준히 도움을 주는 여러단체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한화에너지, 군장에너지, OCI SE 등을 비롯한 개인업체와 사회단체가 있다고 설명했다.

■ 한화에너지 사회공헌활동

한화에너지는 기업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하에 기업시민으로서 기업의 지원활동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업의 나눔 문화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400만원

지난해 4월 시설노후화 등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동아경로당과 진흥아파트경로당에 싱크대 교체와 가스렌지 후드 설치 등의 시설 개선을 진행하였으며, 솔고지경로당 및 3곳에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에어컨, 냉장고, 가스렌지 등의 물품을 전달하였다.



사랑의 공부방 만들기 사업-1,200만원

지난해 6월 오식도지역아동센터에는 아이들의 위생 환경을 위해 노후 싱크대를 교체했으며, 푸른초장지역아동센터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 내·외부에 CCTV설치를 실시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화에너지 봉사단이 공부방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아동2가구를 직접 방문해 도배 및 방충망 교체와 책상세트, 옷장 등의 가구를 전달하는 봉사활동도 펼쳤다.

지난해 10월에는 두드림지역아동센터에는 아이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천장형 에어컨을 교체했으며, 한우리지역아동센터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실내의 낡은 문 교체와 도배를 실시했다. 지역아동센터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한화에너지 측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400만원

지난해 12월 12일 두드림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는 월7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아동들의 복지향상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 군장에너지 사회공헌활동

군장에너지는 매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활동인 '사랑의 1004운동(계좌당 1004원씩 기부)'을 통해 모은 성금과 이에 상응하는 사측에서 후원해 모아진 기금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랑의 쌀 기탁

매년 설날과 추석명절에 소룡동과 미성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백미를 기탁하고 있으며, 올해 백미 10kg 600포(1,68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사랑의 김장나눔

지난해 11월 25일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해 김장김치 210상자(800만원 상당)를 소룡동과 미성동에 기탁했다.



장학금 전달

군장에너지는 해마다 2차례에 걸쳐 발전소주변지역인 군산시와 서천군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소룡동지역 중·고등학생 17명에게 50만원씩 총850만원을, 하반기 중·고등학생 8명에게 50만원씩 총400만원을 전달하였다.



사랑의 연탄 나눔

동절기 난방취약계층을 위해 소룡동과 미성동 지역에 연탄 및 등유를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펼치며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OCI SE 사회공헌활동

OCI SE(주)(대표 김재신)는 2016년부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9년 10월 소룡동,미성동,옥서면 주민들의 자녀(중학생29명, 고등학생30명, 대학생30명)에게 총 1억450만원을 수여했다. 이 중 소룡동은 중학생25명(50만원), 고등학생25명(100만원), 대학생27명(200만원)에게 총9,1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 성금 후원

지난해 1월 (유)군산사랑산업(대표 이준전)과 진포산업(대표 박귀옥)은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각각 15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지난해 4월에는 OCI 군산공장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웃 간에 정을 쌓고 다같이 화합하는 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사랑의 짜장 나눔'행사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하였다.



지난해 12월 17일 (주)농협사료 군산바이오는 소룡동 저소득 홀몸어르신들을 위해 150만원을 전달하였다.



■ 연탄 봉사활동

지난 10월 21일 군산제일신협(이사장 박창길)은 임직원 및 가족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룡동과 해신동 일대 연탄사용가구 20세대에 연탄 4,400장(300만원 상당)과, 난방 취약계층 5세대에 월동난방비 1세대당 15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10일에는 (사)군산시니어서협협회(회장 김순)는 소룡동(동장 전양목) 일대 난방 취약계층 12세대에 연탄 200장씩 총 2,400장(180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성광교회·군산장례예식장



성락교회

■ 기타 물품 등 후원

지난해 1월 29일 해양조선(대표 김혜담)은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백미 20Kg 60포(400만원 상당)를 기탁하였다.

지난해 12월 10일 성광교회(목사 차상영)와 군산장례예식장(대표 김민재)은 지난 11일 동절기 난방 취약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겨울이불 60채(660만원 상당)를 소룡동·미성동·해신동에 기탁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성락교회(목사 송정석)는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라면20개입 80박스(100만원)상당을 기탁하였다.

지난해 12월 19일 삼양이노کم에서는 연말연시 소외된 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쌀35포(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 소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소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올 한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밀반찬지원사업

2019.2월~12월까지 월 2회(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결식우려 저소득 이웃 15가구에 밀반찬을 지원하여 영양불균형 해소와 건강한 일상생활 영위에 도움은 물론 안부확인까지 병행하여 고독사 예방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계란나눔사업

2019.3월~12월까지 매월 1회(둘째 주 수요일) 계란 40판을 관내 지역아동센터(4개소)에 전달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영양 섭취와 건강한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여 아동 복지를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짜장나눔행사

19.4.23일 소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룡동 중화음식종사자로 구성된 사랑나눔짜장봉사회(회장 진이완)의 재능기부와 소룡동 자생단체의 자원봉사를 통해, 관내 독거노인 어르신과 복지시설 이용자 500여 명을 모시고 센터 내 주차장에서 '사랑의 짜장면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북사회공동모금회는 지정기탁금 500만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노후 불량주택 3가구에게 천장보수, 싱크대,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하였으며, 5가구에는 방충망 교체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1분에게는 핸드레일 설치를 지원하였다



카네이션 전달행사

지난해 5.18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소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으로 관내 어르신 70명에게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참여하여 직접 어르신들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버이은혜 노래를 불러 어르신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오신 한 어르신은 “노인 공경사상이 사라지는 요즘, 아동센터 아이들이 와서 어버이은혜 노래를 불러주니 가슴이 뭉클하고 행복하다”며 감사를 표했다.

구충제 지원사업

19.11.8일 저소득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160가구(총640개)를 대상으로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한 구충제를 지원하는 특화사업을 펼쳤다.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19.12.5일 복지통장 및 협의체 위원들이 발굴하여 추천한 관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10명에게 보행보조기를 전달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 희망나르샤 운영

19.1월부터 연중 관내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간이상담실을 설치하여 맞춤형복지계에서 대상자상담과 복지시책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주민밀착형 복지를 실현하여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였다.

전양목 소룡동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은 활발하게 이어나가 지역 주민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한 해 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모두가 다같이 기쁨을 나누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세무상담 및 고문 | 가장 및 신고대리 | 법인 및 개인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업무 | 조세 불복 청구대리 | 벤처기업 확인 업무

돈이란 버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사사무소와 함께 하셔야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무문제는
나일환세무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는 양질의 세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조세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일환세무사 약력
군산제일고 / 전북대 행정학과 / 군산대학교원 회계학과
국세청 79급 공채(15년 근무) / 전주세무서 부가치세과 / 익산세무서 소득세과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양도상속증여) / 공인중개사(14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 자문세무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세무분야 전문가
군산세무서 공평과세 위원회 위원

나일환세무사사무소

군산시 동국사길 5 (월명동 19-12)
tel. (063)466-5566, 1766 fax. (063)466-5605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해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겟 어 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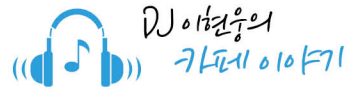
진료시간

- 평일: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오후 8:00까지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2 청담빌딩 3F
tel. 063_466_2875 fax. 063_465_2922



그 곳에 가면 진짜 DJ와 진짜 음악이 있다

<프롤로그>

지곡동 549-2번지에 가면 카페 '음악이야기'가 있다. 그곳에는 '비틀즈'가 있고 '멜로디 가르도'가 있으며 '질은'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인디 가수도 있다. 여러 단골들도 있으며, 언제나 혼자 와서 독한 칵테일을 마시는 '고독맨', 신청곡이 나올 때 평평 우는 '슬픈 남자'도 있다. 술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발길을 끊지 못하는 '투덜이 아저씨'도 있고 그룹 퀸의 음악을 좋아해서 우리끼리 '퀸'으로 통하는 손님도 있다. 이 연재는 카페 주인과 손님들의 이야기이다.



카페 탐방, 왜 하는가

객관적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자신에게는 더 그렇다. 때로는 주관적인 자신을 객관적이라고 말한다. 카페를 비롯한 자영업을 하는 사람,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흔히 나타내는 모습이다. 내가 그랬다.

“카페 탐방의 함정”

카페를 차리겠다고 결심을 굳힌 후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곳의 카페를 방문했다. 비록 내가 정한 테마와 콘셉트와는 다른 카페들이었지만 부분적으로 참고가 될듯싶어 나선 탐방이었다.

우선 손님이 많다고 소문난 카페를 방문했다. 점심 식사 직후에 찾은 카페는 빈자리가 거의 없었다. 15개의 테이블이 거의 차 있었다. 두 시간 정도 있었는데 손님은 계속 들어왔고 자리가 없어 도로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두 시간 동안 메뉴를 주문한 숫자는 50명이 넘었다. 시간대를 고려한다 해도 하루 100명은 넘게 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뒤에 방문한 다른 두 곳도 비슷했다. 내가 사는 소도시에 손님이 많은 카페가 여러 곳 있다는 사실에 나는 흥분했다.

당달아 내가 차릴 카페에 대한 성공의 기대치는 높아만 갔다. 사실 그 카페들에서 장사가 잘 될만한 특별한 것을 찾아낸 것은 아니었다.

인테리어가 독특하거나 돈을 제법 쏟았다는 생각은 들었다. 커피 맛이야 내가 잘 알지 못했지만 설마 커피맛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실제로 웬만한 카페의 커피는 모두 맛있었다. 그렇다 하여

주인이나 직원들이 특별히 친절해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차릴 카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맛있는 커피, 친절함 서비스,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더해 음악까지 수준 높게 제공한다면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나만의 환상에 사로잡혔다.

진심인지는 모르지만 지인들은 확신에 가까운 응원과 덕담을 보냈다. 더는 카페 창업에 미룰 이유가 없었다.

군대를 제대한 직후 고향을 떠나 서울 생활을 할 때가 있었다. 서울 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고향 사람들과 모임을 가졌다. 객지 생활에서의 고됨과 어려움을 달래기 위함이었다. 모임에는 서울 생활의 힘겨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다.

“나도 고향 가서 농사나 지어볼까?”

객지 생활에서 지친 까닭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예외 없이 한 해를 다 보내기도 전에 농부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객지행을 택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농사짓는 것을 만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도 농사나 지어볼까?”라는 그들의 말속에서 이미 실패를 예감할 수 있었다.

그 말에서는 직업 전환에 따른 결연함도, 방향을 제시할 이정표도, 시련을 대비한 인내의 각오도 발견하기 어렵다.

단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에 차지 않거나 힘든 탓에 도피형으로 선택한 농사일에서 성공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반대의 결과도 있었다. 후배 하나는 힘겨운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귀향을 선택했다. 부모님이 짓던 농사일을 물려받아 농부로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부농인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저는 다른 거 말고 꼭 농사로 성공할 거예요.”라고 우리에게 공언했다. 그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목표도 확실했다.

말 한마디에 뭐 그리 거창한 의미를 갖다 붙이느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의 말은 대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은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어쩌면 나는 카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적어도 정신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카페를 시작한 것이 분명하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중에 카페 창업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카페나 해볼까?”가 아니라 “카페를 해야겠다”로 표현하도록 권하고 싶다. 카페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일, 모든 일은 바로 그 한 마디의 결의로부터 성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페 '음악이야기' 대표DJ
이현웅
군산시 신지길 66(지곡동)
010-4104-7159

종교 사기꾼

희대의 종교 사기꾼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한기총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나타난 전광훈 목사는 아무리 보아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극단적인 발언은 물론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까지도 부정하는 말들을 내뱉고 있다.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라는 신성모독 발언으로 같은 기독교계의 거센 항의를 받더니 이런 항의를 무마라도 하려는 듯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며 국가를 존폐의 위기에 몰아넣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공개된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그는 전형적인 사기꾼에 사이비 목사다.

‘사기꾼’이란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교 사기꾼’은 종교를 이용해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존재로 흔히 ‘사이비’라고 한다.

공중부양, 축지법 등 황당한 대선 공약으로 웃음을 자아내게 했던 ‘대선 단골주자’ 허경영 씨는 당시 국민들에게 웃음이라도 주었지만 이 사기꾼 사이비 목사는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기독교는 물론 하나님까지 욕되게 하고 있다.

이 사기꾼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국민이 선택하여 세운 대통령을 향하여 공공연하게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떠들고 반말까지 하며 시비를 건다. 시정잡배나 깡패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공공연하게 한다. 촛불혁명에 의해 세운 박근혜를 몰아내고 문재인 정권을 세운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악한 이들도 사랑하고 화해와 용서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나 이 사기꾼 목사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듯 국민이 선거로 뽑아 세운 정권을 좌파 빨갱이 정권이라고 낙인을 찍고, 독재 정권이라고 공공연하게 비방을 하고 있다.

그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밀거름삼아 수많은 기독교 신도들을 향해 가르쳤던 숭고한 기독교의 박애정신과

사랑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시기와 미움, 비난만이 그의 머릿속에는 존재한다. 이런 미치광이 사기꾼 목사를 끼고 도는 세력이 소위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있기에 이 사기꾼 목사가 더욱 기고만장하며 날뛰는 것이다.

이런 미치광이 목사 한명으로 인해 기독교 전체가 비난을 받고 있다.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전광훈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런 망나니 같은 자가 무슨 선지자요, 목사인가? 그가 속했던 교단도 더는 못 보겠는지 그의 목사직을 박탈했었다.

거짓목사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영적 능력을 받아 특별한 사역을 하는 종이라는 것을 내세운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알려준다거나 고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아주는 등 삶의 지난한 문제들을 단박에 해결해준다고 하지만 이 사기꾼 목사는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며 신 노릇 행세를 하고 있다.

성직자라 함은 성스러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신학 교육 등을 통해 종교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종교지도자로 일반인들과 달리 타의 모범이 되는 언행으로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한 존경의 대상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전체 기독교인들을 욕되게 하고 있다.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고 그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전 군산시의회의원
이 복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우나

15년 전에 돌아가신 선친은 문맹이셨다. 어린 나이에 만주로 이민을 갔고 해방 후 빈손으로 귀향을 한 그 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집에서 품을 파는 것과 막노동 외에는 없었다.

주로 시내에서 손수레로 남의 집을 운반해 주던 아버지가 돌아올 때는 늘 수레에 무엇인가 실려 있었다. 대개는 남들에게 별 소용이 없는 목재토막이나 대나무 고철 등이었다. 남들이 버린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것들로 무언인가를 만들어서 어머니의 필요를 채웠다.

책상과 걸상을 만들고 마당에 평상도 만들고 부엌에 시렁도 만들었다.

어린 나이에 그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가끔은 나도 아버지의 흉내를 내며 아버지가 소중하게 모아 둔 재료들을 소비하며 연장에 흠도 내면서 혼도 났지만 제법 그럴싸하게 만들어 진 것들을 보며 어머니가 흡족해 하시곤 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단 한 톨도 없었지만 보고 배운 것들과 강한 생활력을 배운 덕에 늘 고학과 독학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잘 적응해 나가며 성장을 했다. 때로는 연탄지계를 지며 야채 과일 생산 노점상도 하면서 스스로 배우며 살아왔다.

남들이 7년이면 마치는 과정을 14년 만에 마치고 처음 교회 개척을 하면서 30평짜리 상가를 임대했으나 내부 공사를 할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고물을 모으고 버려진 토막자재들을 모아서 강단도 만들고 사무실도 만들었다. 돈만 주면 다 만들어지는 것들이지만 창문 선텅도 십자가 네온탑도 자재상에 가서 직접 주문하고 가져다가 혼자서 설치를 했다. 내게 있어서의 배움은 그렇게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었다.

13년간의 목회를 마치고 바로 다음날 인력시장에 뛰어든 것도, 그 2년 후 건축업을 시작한 것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손재주를 보며 자랐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그 무엇인가를 보며 자란다. 어른들이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자신에게 관심 있는 분야는 더 쉽게 배우고 따라할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의 삶의 모습은 중요한 것이다.

이기적이고 군림하며 음해하고 속이고 남을 짓이기며 살아가는 어른들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배울지 모르겠다.

이렇게 쓰는 나 자신은 또 자녀와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어떤 어른인지 모른다.

과연 나는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수필가 / 청목하우징 대표 /
군산사료총판 진우상회
공동대표 / 시민·사회·
환경 운동가 남대진

오월동주 吳越同舟 하는 경자년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로 인한 경기침체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군산경제가 매우 힘든 한 해였다. 먼저 이 힘든 위기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경기 회복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

2020년 경자년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은 한 해이다. 더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를 찾아 군산을 떠난 시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건실한 강소기업을 꾸준히 유치하고 국가산업단지에 빈 공장들을 다시 가동하는 공장으로 바꿔내야 하는 과제와 '군산상생형일자리'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명신컨소시엄과 새만금컨소시엄의 전기차 생산공장들이 군산에 투자를 하는 시기, 봄 햇살에 눈 녹듯 막힌 경제를 풀어야 할 미션을 안고 출발 하면서 오는 4월이면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모든 선거에서는 상대방이 있기 마련이고 지나치게 선거에 집중하다 보면 시민들이 사분오열되어 어려운 지역경기를 헤쳐 나가는데 힘을 집중하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유념해서 선거를 마치고 힘든 군산경기 활성화에 집중을 해야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 익숙한 '오월동주(吳越同舟)'의 고사를 소개 한다.

중국 수많은 제후국이 서로 경합을 벌인 춘추시대, 그 중에서도 5대 강대국에 속했던 오(吳)나라와 월(越)나라는 철천지원수 사이였다. 오나라의 합려(閭閻)와 월나라의 윤상(允常)은 서로 원한이 있는 사이였는데 윤상 사후에 그의 아들 구천(句踐)이 오나라를 침략, 합려를 죽이게 된다. 후에 합려의 뒤를 이은 부차(夫差)에게 다시 크게 패한 구천은 그 후로 오랫동안 복수를 위해 이를 갈았고 결국 오나라를 멸망시킨다. '와신상담'(臥薪嘗膽)이라는 유명한 고사성어 역시 이러한 역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손자병법에 "무릇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서로 미워하나, 그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상황에서 풍랑을 만난다면 서로 구제함이 오른손 왼손의 관계와 같을 것이다.(夫吳人與越人 相惡也 當其同舟而濟 遇風 其相救也 如左右手)"하는 말이 있다.

오월동주는 우리말의 속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와 일맥상통 한다고 보지만, 오월동주는 불구대천의 원수를 기묘하고도 운명적인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그 원수들이 공통의 목표, 즉 생존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아이러니에 까지 이른다.(위키백과) 오월동주의 고사성어의 진정한 의미는 '위기탈출을 위한 협동'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선의를 경쟁도 중요하지만 공통의 목표를 위한 오월동주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경자년이다.

경자년 새 해, 독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글 | 온승조(컬럼니스트)
gsforum@hanmail.net

2020 “군산시민예술촌” 새로운 도약의 해로 설계하다

군산시민예술촌(촌장 박양기)이 운영 6년차에 들어서면서 다가오는 2020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창작소라는 비전을 갖고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온 군산시민예술촌은 그동안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시민과 예술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2020년에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들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며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여 진행할 예정으로 시민과 예술인 그리고 예술촌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첫 번째 교육의 다양화로 누구나 문화예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제공, 두 번째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제공, 세 번째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과 네트워크 조성으로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밑거름 제공, 네 번째 국·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함께 성장하는 예술촌으로 만들 예정이다.

군산시민예술촌 박양기 촌장은 “2020년은 시민이 누구나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지역예술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2020년에는 시민 모두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민예술촌
군산시 중정길 17 (구 우일극장)
063-443-7725
www.gsartzone.kr



제5회 달달파티 '어쩌다 발견한 달그락'

달그락은 매년 활동의 마지막 행사로 청소년들의 변화와 그들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에 대해서 안내하고 감사한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는 달달파티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연다. 어느덧 5회째를 맞이했다. 이 날은 달그락 활동 청소년, 위원, 자원활동가, 후원자 등이 함께 모여서 일년여 간 달그락에서의 활동을 통한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공유하고 함께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감사한다.

매해 식사는 각자 음식을 가져와 나누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달그락 청소년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샌드위치와 마들렌 등을 손수 만들어서 제공했다. 꿈청지기인 오지영 대표님은 청소년들의 음식 마련 장소로 꿈각지를 대여해 주셨고, 새전북신문사의 박명규 대표님께서 닭강정을, 차는 달그락 1층 해피빈스에서 받았다. 선물로 나누는 커피드립팩은 카페미국의 장동현 대표님, 빵은 오존베이커리의 여찬기, 김민섭 대표님이 후원했다. 모두가 청소년자치연구소를 후원하면서 함께 하는 분들이다.

이번해 달달파티의 주제는 '어쩌다 발견한 달그락'이다. 달그락의 거의 모든 청



소년들은 우연이든, 그렇지 않은 달그락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다. 활동 가운데 어색함과 힘겨움과 갈등이 있지만 결국에는 한발짝 성장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한다. 청소년 변화 이야기의 발표자 중 한 명인 서종학 청소년은 1년간의 달그락 활동을 하면서 자신은 직선으로 나아가는 화살이었는데 어느 순간 표적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현재 대학 재학 중인 연합회 1기 대표를 맡았던 김정윤 청년은 인권에 의미를 이미 알고 가서 대학 생활에서 나름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꿈청지기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은 일일차집하고 남은 수익금 3백만원을 후원하셨고, 성남에 계신 최득실 위원님은 내년 월세라도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백만원을

보내주셨다. 위원회와 상근 활동가 선생님들은 청소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감사장을, 청소년들은 이번 해 각 위원회와 자원활동가 두 개 그룹분들에게 감사장과 선물을 나누었다.

정건희 소장은 '또 다른 모험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달그락에서는 '자치상'이 바탕이 된 '진짜활동'을 계속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그락의 존재 이유는 청소년들의 삶이 복이 되도록 돕는 일이며, 이를 위해 모험과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달달파티는 모험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상황에서의 내적 성장과 사회의 모습들을 투영하면서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는 과정을 체험할 2020년을 기대하는 시간이었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outhautonomy/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달그락 달그락”

“작고 단단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앞의 달그락은 청소년들이 움직여서 내는 소리입니다.

뒤에 달그락은 청소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로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소리입니다.



Youth Movement



저희 연구소와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후원계좌_ **국민은행 247901-04-096683**
예금주_ (사) 들꽃청소년세상

새마을 **들꽃청소년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add. 54023 전북 군산시 월명로 475-1(월명동)
tel. 063) 465-8871 fax. 063) 466-8871
e-mail. jbyar@hanmail.net web. youthauto.net
cafe. <http://cafe.daum.net/ymcaleader>

■ 군산시청 가족친화우수기관 재인증 행복한 가족 즐거운 일터 환경조성

군산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우수기관에 재인증됐다. 시는 지난 2014년 12월 가족친화우수기관으로 신규 인증된 후 이번 재인증을 통해 오는 2022년 11월까지 8년간 자격을 유지한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ce)을 조화롭게 이루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을 심사해 인증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한국경영인협회로부터 서류 및 현장심사와 직원들의 가족친화경영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통과해 2019년 12월 재인증됐다. 군산시는 출산과 양육 친화적 특별휴가 활용을 장려하고 근로자 상담 및 가족친화 직장교육(힐링포유), 정시퇴근, 직장동호회 등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해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즐겁고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확산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새만금 잼버리 글로벌 소셜벤처 해커톤 개최 군산대 창업지원단

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최연성)은 20일부터 21일까지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계단식 강의실에서 ‘2019 군산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새만금 잼버리 글로벌 소셜벤처 해커톤’을 개최했다. 이 대회는 2023년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지인 군산의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전국 청소년들이 모여 지구촌 문제와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서울 배제고등학교 1학년 김규민 학생 등 전국 고등학생 211명과 군산대학교 산업디자인과 문다형 등 십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했다. 43팀으로 구성된 각 팀은 AI, IoT, AR, 군산의 일자리와 지역발전, 인권과 성평등, 포용적 공동체, 친환경 에너지, 생물다양성, 고등교육 등의 아젠다를 중심으로 무박 2일간 토론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팀별 결과를 도출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6팀이 예선을 통과했고, 최우수상은 서울 재현고등학교 1학년 강화재 팀(팀원:7명)이 수상했다. 군산대학교 최연성 창업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시, 수두환자 증가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최근 한달새 수두환자가 1000명 이상 증가하며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1~7일 한 주간 발생한 수두 환자는 2161명으로 이는 지난 10월 27일~11월 2일 1023명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수두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4~6월, 11~1월에 많이 발생한다. 수두 바이러스는 호흡기 분비물(기침, 재채기, 침)이 공기 중에 전파되거나 수포성 피부병변에 직접 접촉하며 감염된다. 또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

할 수 있는 유행성 질환이나 일반적으로 10세 이하 아동에게 많이 나타나며, 특히 국내에서는 4~6세 소아에게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수두 바이러스의 잠복기간은 2~3주로, 보통 감염 후 13~17일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미열 등 감기와 비슷한 증세로 시작해 전신의 피부에 작은 물집들이 생기면서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다. 수포는 대개 머리에서 시작해 온 몸으로 퍼지며 발생 초기일수록 전염성이 강하다. 전파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수포성 발진에 가피(피부 딱지)가 앉고 새로운 발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격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수두는 한번 앓으면 평생 면역을 획득하지만, 발병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수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야 한다. 수두는 백신 접종으로 완벽에 가깝게 예방 가능하다.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생후 12~15개월 유아는 백신을 1회 무료로 접종 가능하다.

■ 군산사랑 상품권 할인률 하향 불가피

현행 10%에서 8%수준
도비 지원시 9%대 가능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 중단에 이어 군산사랑 상품권의 할인률도 조정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지난 2018년 9월 군산사랑 상품권 출시 이후 10월 부터 추진된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은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 혜택과 더불어 사용 영수증으로 최대 2만원까지 추가 환급을 해주는 사업으로 대규모점포나 온라인쇼핑을 통한 자금 역외 유출을 최소화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가맹점 매출증가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상품권 할인율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았던 때와 달리 2019년부터 국비 지원액이 4% 수준으로 대폭 감소됨에 따라 시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을 마무리 짓고, 재원과 행정력을 집중해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어 올해 발행분 군산사랑 상품권에 대한 할인률을 현행 10% 수준에서 8%대로 낮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액이 4% 수준으로 10%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6%대의 예산을 수혈해야하는 어



려움이 뒤따른다. 연간 3,000억원 규모로 보면 할인률 6%인 180억원에 발행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연간 추산 250억원에 가까운 시비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올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3,000억원을 목표로 올해 본예산에 국비 4% 할인지원분 120억원과 시비 할인분과 수수료 등 300여억원을 편성해 우선 확보했다. 하지만 국비나 도비의 확대 또는 지원이 어려울 경우 할인을 인하는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강임준 시장도 지난해 12월 중순께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상품권 발행한도를 3,000억원규모로 제한하고 있고 할인을 지원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최소 할인률은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비 지원도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도가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을 지원을 위한 도비지원에 나선다며 최소 9%대의 할인률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 지난해 21개 업체와 투자협약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등 투자여건 개선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이 지난 한 해 동안 총 21건(21개사), 4,874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새만금지역의 투자협약 체결 건수는 연간 1~4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들어 8건으로 늘었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투자유치는 미래 유망산업인 재생에너지원을 비롯해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등 신산업분야에서 두드러졌다. 또한, 외투기업인 레나인터내셔널 등 17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주 성과 또한 대폭 증가했으며 3월에는 네모이엔지, 6월에는 레나인터내셔널, 11월에는 동호코스모가 조기 준공을 목표로 착공했다. 이처럼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가 활기를 띄는 이유는 장기임대용지 확대와 국내기업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 조기구축 등 투자여건의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국내외 투자설명회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만금개발청 배호열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에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핵심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해 나가는 한편, 기업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투자혜택(인센티브)을 적극 발굴하는 등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새만금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금융상품 개발

공공기관 상생협력 협약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전북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지난달 27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공공기관 상생협력 협약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협력기업에 대한 포용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과 국토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협약을 통해 공사는 10억원 이상을 전북은행에 예약하고 은행은 7억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며 재단은 그 재원을 바탕으로 총

1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에 대해 90%를 보증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른 신용보증서의 지원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8년이다. 지원대상은 공사의 협력기업이거나 은행이 추천하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소상공인, 7년 이내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강팔문 시장은 “소상공인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새만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동반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개발되는 금융상품은 내년 1월 초순에 출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전라북도 최우수 선정

군산시는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19년 미세먼지 저감 시·군 평가 결과 최우수에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미세먼지 저감관련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군산시가 최우수에 선정돼 기관표창 및 포상금 700만원을 수여받게 됐다. 평가항목은 ▲기관장 관심도 및 타부서 협업사례 ▲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지원 사항 및 집행율 ▲친환경차량 보급 및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간담회 개최 등 홍보실적 ▲시·군 자체 특수시책 추진 등 5개 부문 14개 지표에 대해 진행했다. 군산시는 특히 강임준 군산시장이 상반기, 하반기 2번의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관련 실과과장들에게 직접 미세먼지 저감사업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부서간 협업을 통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관장 관심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등 저감사업 예산규모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기차 보급, 건설공사장 관리, 도로청소차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에서도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미세먼지 대응 및 실천방안 등에 대해 부서별 특성에 맞게 정기적으로 실시한 교육 및 간담회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타 부서 협업체제 및 시 자체 예산사업 발굴에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에 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관계부서의 노고를 격려한다”면서, “미세먼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 입니다. jay0810@hanmail.net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GUNSAN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뮤지컬 맘마미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뮤지컬 맘마미아 제18회 전북교원관현 악단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01	02	03	04			
뮤지컬 맘마미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드볼레 발레 아카 데미 정기공연 군산 예술의전당
05	06	07	08	09	10	
전주필청소년오케 스트라 제3회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군산 예술의전당		2020 전주시립교향 악단 신년음악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20 경기필 초청 신년음악회 KBS 전주 어린이 합창단 '행복더하기'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2	13	14	15	16	17	18
전주시 어린이 예술 단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9	20	21	22	23	24	25
				교향악단 제136회 정기 연주회 군산 예술의전당		
26	27	28	29	30	31	



- 전시**
- 군산예술의전당
태양의 화가, 반 고흐
2020-01-21 ~ 2020-02-20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채용진 '마음을 그려내다' 초상화전
2019-12-18 ~ 2020-02-28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12.14(토)~02.16(일) 일렉트릭 체험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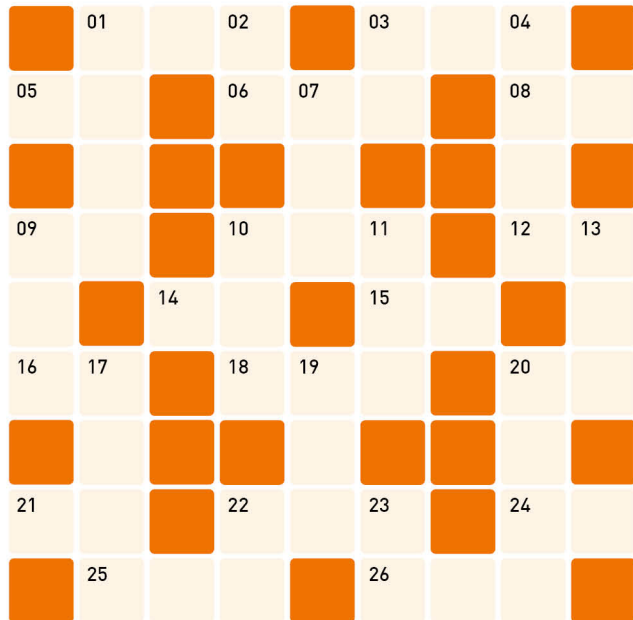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스영아원 군산시 쌍천로 82-13(개정동) (063) 452-4075	구세군군산후생관 군산시 월명로 514(신흥동) (063) 445-9331	삼성애육원 군산시 구영2길 1-2(신창동) (063) 445-5947
일맥원 군산시 석치2길 14(문화동) (063) 462-2385	신광모자원 군산시 부곡로 19(나운동) (063) 462-7749	신광모자자립원 군산시 한밭1길 35(나운동) (063) 461-8572
구세군군산목양원 군산시 회현면 남군산로 332-45 (063) 466-6088	나눔의집 군산시 옥구읍 옥정길 101-7 (063) 464-9944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3길 37(산북동) (063) 466-7981

낱말 실력도 늘고, 상품도 받고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102



<제101호 퍼즐 정답>

	상	고	대		뱃	사	공	
전	담		설	화		마	천	루
내	소	사			인	천		돌
기		색	감		지		하	프
	미		개	근	상		사	
헛	간		무		정	철		꼭
소		미	량			퇴	마	사
문	풍	지		우	주		우	리
	부	수	입		스	위	스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446-1856 **E-mail.** 282pyk@hanmail.net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은 4페이지 협찬업체 참조

▶ 가로 열쇠

- 01 얼마 지나지 않은 가까운 시대의 역사.
- 03 군산 해망동 앞 바다에 대규모 면적으로 조성된 인공 섬 이름.
- 05 비행기, 로켓 따위의 속도 단위.
- 06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간단한 글이나 그림을 담아 보내는 서장(書狀).
- 08 땅을 파서 거적 따위로 추위나 비바람만 가릴 정도로 임시로 지은 집.
- 09 여자 나이가 혼인할 시기를 지남. ○○한 딸이 있다.
- 10 오랫동안 끌어가며 싸우는 전쟁이나 시합.
- 12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나타나는, 기사(棋士)의 독특한 방식이나 개성.
- 14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
- 15 짐승이나 물고기, 벌레 따위를 세는 단위.
- 16 얼굴에 끼는 거뿔한 얼룩점.
- 18 고래잡이 배.
- 20 우리나라 육군 최대의 훈련소와 항공학교가 있는 도시.
- 21 삼국 시대에 제주도에 있던 나라.
- 22 한 살 터울로 아이를 낳음. 또는 그 아이.
- 24 그릇, 밥상 따위를 닦거나 씻는 데 쓰는 형겅.
- 25 주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최고 책임자.
- 26 베나 무명 따위의 옷감을 파는 장사.

▼ 세로 열쇠

- 01 삼가 새해를 축하한다는 뜻의 인사말.
- 02 일의 앞뒤 사정과 까닭.
- 03 금으로 장식함. 또는 그런 장식.
- 04 높이뛰기, 멀리뛰기, 창던지기 따위에서 뛰거나 던지는 힘을 높이기 위하여 구름판까지 일정한 거리를 달리는 일.
- 07 쓰고 버리는 더러운 물이 흘러내려 가도록 만든 도랑.
- 09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간 시기. 사상이나 제도 따위가 확립되지 않아 불안정한 시기.
- 10 온갖 종이를 파는 가게.
- 11 큰 배와 육지, 또는 배와 배 사이의 연락을 맡아 하는 작은 배.
- 13 가을의 금강산을 달리 이르는 말.
- 17 추어탕의 주재료가 되는 물고기.
- 19 2019년은 돼지띠해인 기해년, 2020년은 쥐띠해인 ○○○이다.
- 20 공을 따져 상을 내림.
- 22 서로 연애하는 관계에 있는 두 사람. 몹시 그리며 사랑하는 사람.
- 23 산 채로 잡음.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당신의 구독이
내안의 분화를 꽃피웁니다

Gunsan MAGAZINE
매거진군산 구독신청서

군산의 문화와 언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매거진군산은 100호까지 무료로 발행이 되었으며 101호부터 유료로 배포가 됩니다.
 본 CMS 출금이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매달 잡지를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송부 (063)446-1856 해주시거나 혹은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jay0810@hanmail.net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출금이체서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 수납기관명 : ICM(아이씨엠) · 대표자 : 이진우 · 사업장 주소 :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 사업자등록번호 : 401-05-33000 · 수납 요금종류 : 구독료 납부

☐ 매거진군산 구독(7,000원 /월) ☐ 매거진군산 + 새군산신문 구독(10,000원 /월)

■ 구독받으실 주소

· 출금계좌 예금주명 :	· 예금주 생년월일 :	계좌 예금주가 사업자일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금융기관명 :	· 출금 계좌번호 :	
· 예금주 연락처 (휴대전화)_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경우 · 신청인명 :	· 예금주와의 관계 :	
· 신청인 연락처 (휴대전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납부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상상
그 이상을 향해!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훼리(주) www.shidaoferry.com

군산 **tel.** 063-441-1200 **fax.** 063-441-1220

석도 **tel.** +86-631-728-6666 **fax.** +86-631-728-9399

서울 **tel.** 02-725-7811 **fax.** 02-725-1671

하역/운송사(주)제범 **tel.** 063-461-1803 **fax.** 063-461-1836